

자료제공 : 2024. 5. 4.(토)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 부서 : 홍보기획관 서울브랜드담당관

서울브랜드담당관

김 지 혜

2133-6185

사진 없음 사진, 영상 있음 매수 : 4매

캐릭터마케팅장

허 준

2133-6940

서울광장 첫 팝업 <해치의 마법마을> 첫날 5천 명 다녀가, 연일 오픈런 행진

- 팝업 오픈 1시간 전부터 300여명 줄이어
- 프리오픈 3시간 동안 2천 명 방문, 정식 운영 첫날 5천 여명 다녀가 해치 인기 실감
- 해치의 마법탐험대, 뜨거운 현장접수 열기에 인원제한 풀고 자유관람으로 변경
- 시, “해치&소울프렌즈를 향한 많은 사랑에 감사, 도시 매력 알리는 대표 캐릭터로 만들 것”

- 서울시가 시 상징 캐릭터 해치&소울프렌즈를 테마로 서울광장에서 2일(목)부터 6일(월)까지 운영하는 서울광장 첫 팝업 <해치의 마법마을>이 연일 오픈런 행진을 이어가고 있어 해치&소울프렌즈의 인기를 실감케 하고 있다.
- 정식 운영 첫날인 3일(금)에 이어, 이틀째인 4일(토)에도 팝업이 열리기 1시간 전인 10시 경부터 300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마법마을 입구에 줄지어 늘어서는 광경이 연출됐다.
- 2일(목)에는 프리오픈 3시간 동안 2천 명에 달하는 시민들이, 정식 운영 첫날인 3일(금)에는 5천여 명이 <해치의 마법마을>을 찾았다. 서울시는 블로그,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(SNS)을 통해

해치의 마법마을 관련 사진과 게시글들이 계속 확산되고 있어, 날씨만 꺾지 않다면 남은 어린이날 연휴에도 약 1만여 명의 시민들이 <해치의 마법마을>을 방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.

○ 현장에 방문한 시민 조00(33)는 “이번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캐릭터가 너무 귀엽다고 생각하고 있는데, 인스타그램을 통해 서울광장 팝업 이벤트를 연다는 소식을 듣고 방문했다”고 했으며 “광장에서 직접 해치와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어서 즐거웠다”고 하였다.

□ 또한 이번 팝업의 하이라이트인 <해치의 마법탐험대>도 주목받고 있다. <해치의 마법탐험대>는 3일~4일 양일간 오후 2시~3시 딱 1시간만, 시장실을 포함해 평소 자유롭게 출입하기 어려웠던 서울시청 사무공간을 ‘해치&소울프렌즈가 탄생한 곳’이라는 특별한 컨셉으로 만나볼 수 있는 투어 프로그램이다.

○ 29일 사전 신청 때에는 3분 만에 모든 자리가 매진되었고, 사전 신청에 실패한 많은 시민들이 마법탐험대 운영 첫날인 3일 현장 신청을 위해 마법탐험대 접수처인 서울도서관 입구로 몰려들었다.

□ 마법탐험대에 쏟아지는 인기와 한정된 운영시간 모두를 고려하여 서울시는 4일 마법탐험대 마지막 날에는, 신청하는 분들 모두 마법탐험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원 제한을 풀고 자유관람 방식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.

○ 당초에는 신청링크를 투어 1시간 전인 오후 1시부터 오픈할 예정이었으나, 마법마을 팝업이 시작되는 오전 11시부터 신청링크를

개방하기로 했다.

- 〈해치의 마법마을〉은 걱정을 행복으로 바꿔주는 해치의 마법방울 스토리를 기반으로 스탬프챌리를 즐기는 체험공간, 어린이들이 그린 해치 그림을 관람하는 전시공간 등으로 운영 중이다.
 - 5월 2일은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프리오픈(pre-open) 개념으로 운영하고, 3일부터 6일까지 매일 오전 11시~오후 7시에 정식 운영한다.
 - 5일과 6일 비소식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, 서울시는 강수량이 20mm 미만일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〈해치의 마법마을〉 팝업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.

- 마채숙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“해치&소울프렌즈를 만나러 온 많은 시민들께 감사드린다.”라며 “앞으로도 해치&소울프렌즈가 시민들을 만날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해, 건강하고 편(FUN)하고, 매력 넘치는 서울 브랜드를 국내외에 알리는 명실상부한 대표 캐릭터로 만들겠다”라고 말했다.

붙임 : 현장 사진 1부. 끝.



사진 영상 다운로드 주소 :

<https://drive.google.com/drive/folders/12p6hHP3cYAz7CHQNjUvA04Fhi4zilLc6>